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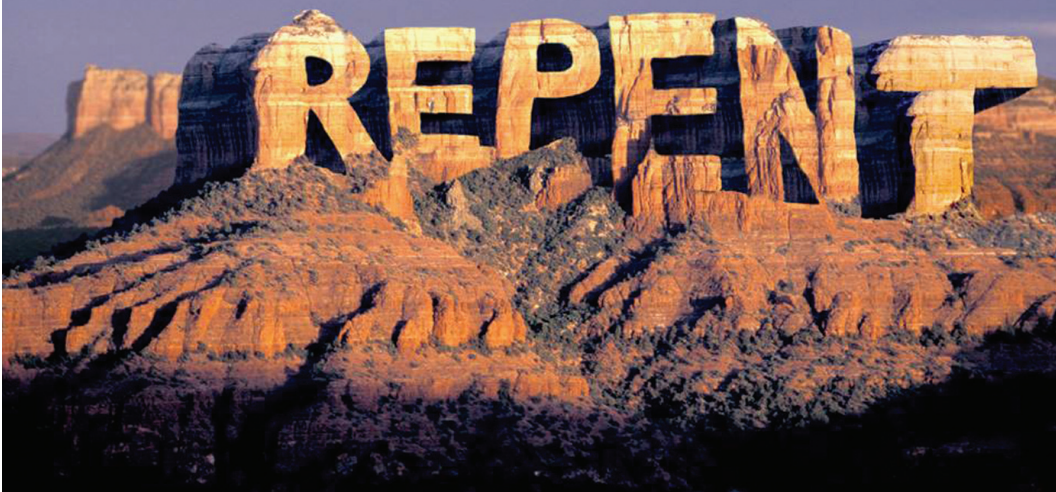
Volume 16 Number 11 • 11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지질학 전공자를 기다리며

“생물학은 지질학으로부터 시간을 취한다. 우리가 생명체의 느린 변화속도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지질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일련의 퇴적암이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만일 지질학 시계가 틀렸다면, 모든 자연주의자들이 해야 할 것은 변화의 급속성에 대한 개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윈을 비판하는 자들을 거침없이 공격하며 진화론을 옹호했기에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헉슬리(Thomas H. Huxley, 1825-95, 영국)가 런던 지질학회의 기념연설(1869)에서 한 말이다. 진화론이 급속도로 퍼져가던 당시에 그 대표자가 말한 내용은 진화론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스스로가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진화를 믿은 “유일한” 이유는 지질학에서 지층형성이 오랜 기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물이 오랜 세월





걸쳐 진화해 왔다는 아이디어는 오늘날의 지구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사고가 기초가 되었음을 말한다. 진화론보다 지질학이 이탈한 것이 먼저였다.

실제로 진화론의 태동 순서를 보더라도 지질학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그리고 산들은 긴 기간 깎여서 형성되었다는 생각은 1795년 허튼(James Hutton)에서 출발하여, 1833년 라이엘(Charles Lyell)의 “지질학 원리(Principle of Geology)”에서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지구의 과거 역사를 오늘날과 같은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동일과정설”이라고 한다. 이 동일과정설은 지질학에만 그치지 않고, 그대로 생물학으로 연결되었다. 그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종의 기원, 1859)이다. 그러므로 순서적으로도 오랜 연대의 지질학은 진화론을 잉태해 한 장본인이다. 지질학이 진화론으로 향하는 토대가 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순서는 창조과학 사역을 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의 문제점을 접근할 때도 그 문제점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참가자들이 격변적인 지질학적 접근으로 노아홍수를 다룰 때 진화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지층, 석탄, 화석 등의 지질학적 특징들이 시간이라 아니라 전지구적인 대격변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 진화의 역사라고 하는 지질 주상도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더 나아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이해했을 때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앞의 지질학

용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질학은 진화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미국창조과학계를 보더라도 Drs. Steven Austin(퇴적학), Andrew Snelling(암석학), John Baumgardner(지구물리학), Kurt Wise(고생물학) 등이 각 지질학분야에서 성경을 변증하는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진행할 때도 역시 지질학 내용을 다루는 과정 동안 참가자들이 성경적 역사를 쉽게 이해한다. 최근에 탐사여행 횟수의 증가와 결과를 보며 지질학 전공자들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창조과학선교회는 한국이나 미주에 유학하고 있는 지질학 전공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물론 이 계획은 다른 과학분야의 전공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기가 지질학 전공자를 발굴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질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주위에 지질학 전공자가 있는 분들을 창조과학으로 적극 참여를 바란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speak to the earth, and it will teach you)”(욥 12:8) 욥의 창조주에 대한 확신으로 말한 이 구절이 기독교인 지질학도들에게 학문연구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별히 탐사여행은 창조과학의 눈을 여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오는 12월 29-30일에 있을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지질학과 학생들이 동승하는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AFTER EDEN

by Dan Lietha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
지구의
나이에 대한
견해



빅뱅은 과학적인가?

만은 사람들은 빅뱅모델이 신학적으로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됨을 알지 못하고 있다. 빅뱅이 사람을 달까지 보낸 다든지 컴퓨터를 개발하는 등 그러한 실용 범위의 과학일까? 그렇지 않다. 빅뱅은 관찰할 수도 없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도 없다. 즉 실험과학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이다. 여기서 몇가지 실제 경우들을 살펴 보려고 한다.

1) **행방불명 된 단극자:** 보통 자석은 S극과 N극이 있어 다른 극은 서로 끌어 당기고 동일한 극끼리는 밀어 내는 특징을 모두 잘 안다. 그런데 일반 자석과는 달리 단극자(monopole)는 N극 혹은 S극 만을 가진 질량양자이다. 입자 물리학자들은 빅뱅시 고온 상태에서 자성을 띤 이 단극자들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단극자들은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흔히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극자들이 발견된 적이 없다. 그 단극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단극자들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우주가 결코 뜨겁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는 빅뱅이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다. 고온에서 우주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반물질은 어디에:** 빅뱅에 대한 또다른 도전은 중입자수(Baryon Number) 문제이다. 빅뱅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에너지로부터 수소나 헬륨가스 같은 물질이 생겨났다고 가정

한다. 그런데 실험물리에서는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만들어 질 때 그 반응으로 반물질(antimatter)들도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반물질 입자들은 물질과 반대 전하를 띠는 것(즉 양성자는 양전하인 반면 반양성자는 음전하를 가짐)을 제외하면 일반 물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하튼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모든 과정에는 생성되는 물질과 동일한 양의 반물질이 동시에 만들어지며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빅뱅이 사실이라면 동일한 양의 물질과 반물질이 만들어졌을 것이며 우주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에는 반물질의 흔적 조차 없다. 이것이 빅뱅의 치명적인 문제다.

3) **행방불명된 빅뱅 초기 별(POP. III):** 빅뱅모델 자체로는 단지 세 개의 가장 가벼운 원소들인 수소, 헬륨, 그리고 미량의 리튬들 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90% 이상의 다른 물질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남겨 놓게 된다. 빅뱅 지지자들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라고 쉽게 설명해 버린다. 그러나 빅뱅은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만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천문학자들은 별 중심에서 발생하는 핵 융합 반응이 그 원소들을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 즉 초신성 슈퍼노바가 폭발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그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믿는다. 폭발 후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며 둘째 그리고 셋째 세대의 별들이 이 적은 양의 무거운 원소들로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주 초기에 존재하는 물질은 오직 이 3개의 원소들만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별들은 단지 3개의 가장 가벼운 원소들로만 구성되었어야 한다. 우주 초기 별들의 나이는 빅뱅에 의한 우주의 나이와 동일해야하므로 오늘날도 빅뱅 초기의 별들(Population III)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 빅뱅을 믿는자들에게 - 그들은 별들이 발견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별들은 모두 적어도 무거운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은하계 안에만 1000억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3개의 가장 가벼운 물질들로만 구성된 별들은 단 한개도 발견된 적이 없다. 이 사실 또한 빅뱅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빅뱅은 우주가 초능력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십억년 전에 자연과정에 의해 우연히 스스로 생겼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실들은 이 이론에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앞에서 알아 보았다. 지면상 몇가지 문제점만 살펴보았지만 빅뱅이론에는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반면에 과학의 발전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있다 (참조: www.hisark.com ACT 이동용 컬럼: 불연속은하, January 22, 2007). 그렇다. 성경은 진화모델이 사용하는 모호한 추상적 개념 없이 늘 직접 답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이다.

참조: "War of the Worldviews, Chapters 5 & 6" Master Books, 2006.



이동용
중부지부장
항공기계
공학박사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1)

고래가 말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동물은 큰 물고기이다. 히브리어로 탄닌(tannin)인데, 영어로는 great whale 또는 great sea-monsters로 번역됐다. 다른 곳에서는 “용, dragon”으로 번역됐다. 분명한 것은 큰 물고기에서 시작하는 동물창조의 모습에서 창조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려는 진화순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현재 지구상에 가장 큰 동물은 고래며, 그 가운데 청고래가 가장 큰데 길이가 40m에 달하며 심장 크기만해도 소형 승용차만하다. 고래(돌고래를 포함해서)는 포유류며 어류가 아니다. 고래는 자신의 전 생애를 물에서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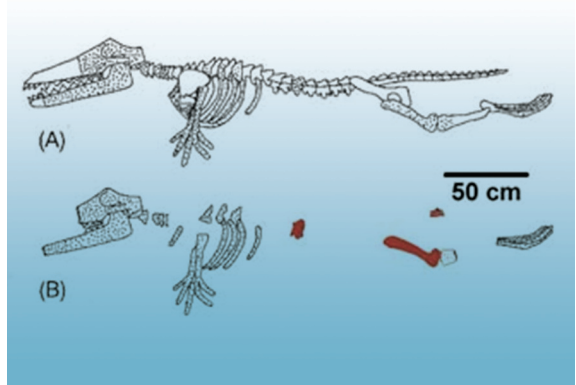
진화론자들은 고래가 육지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믿는다. Teaching about Evolution(1998)은 고래가 “mesonychids라는 말굽 가진 포유류의 원시 그룹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를 거쳐 포유류로 진화했다가, 그 포유류가 다시 물에 적응하여 고래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일단 진화론자들은 고래가 포유류에서 진화되었다는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화석에서 그 중간단계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화석을 꼽으라면 *Ambulocetus natans*이다. 실제로 이것은 여러 화석조각을 모은 것이며 어떤 것은 다른 조각과 5m나 떨어져 있어 그들 몸의 일부인지 아닌지도 모를 뼈를 끼워 넣은 것이다(그림). Science 지(1994)에서는 이 화석조각을 보고 “골반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Ambulocetus*에는 뒷다리와 중추 사이에 연결을 위한 어떤 직접적 증거도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진화론자 자신들의 연대측정법을 사용했을 때도 완전(분명)한 고래보다도 훨씬 더 젊게 측정되는 우스운 결과도 나왔다!

진화론자들이 고래의 진화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몸 안에 퇴화되어 매몰된 다리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관은 다리가 아니며 쓸모 없는 것도 아니다. 이는 새끼를 낳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더군다나 이 뼈는 수놈과 암놈이 다르게 생겼다. 그러므로 이들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을 갖고 지금 위치에 중요한 기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래 역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고래 조상화석이라 주장하는 *Ambulocetus natans*의 실제 발견 부위(B)와 재구성(A)



*Ambulocetus natans*의 상상도

가지로 정교하게 디자인되었다. 90분간이나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엄청난 허파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꼬리는 커다랗고 힘있는 수평의 갈고리를 갖고 있어서 큰 몸체를 물속에서 날렵하게 움직이기에 효과적이다. 눈은 높은 굴절률의 수정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귀는 육지 동물과는 달리 공중에서 오는 음파를 물속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데 모두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다.

털과 땀샘이 거의 없이 섬유질의 두꺼운 지방으로 된 피부와 머리 꼭대기에 있는 콧구멍은 물속에서 살면서 숨을 쉬기에 적합하다. 새끼의 입과 어미의 젖꼭지는 물속에서도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되어있다. 수중음파 탐지기는 아주 정확한데 70m 밖에 있는 골프 공 크기의 물고기도 감지할 수 있다.

고래에 대한 이 모든 증거들은 이들이 시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재만



창조과학 탐사여행 | 해외사역 | 세미나 | 학교

이재만 선교사 한국과 일본방문 마쳐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9월 4-29일 26일간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독산동교회, 애일교회, 분당 샘물교회, 춘천 예담교회, 부전교회, 대구 성실교회, 울산 주춧돌교회, 수원 온누리교회, 부산 대학교, 연세대학교, 두란노 본사, 중앙청사 법제처, 기독교 CEO, 한일 CEO, 한국 창조과학회, 기독교 지질 학생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는 이번 한국 방문은 출발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떠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이슈가 되는 양승훈 교수가 제기한 다중격변론에 대한 지질학적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 지질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정에 없었던 일본을 방문하여 중요한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격변과 지구나이”

9월 11일에 “격변과 지구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양승훈 교수의 다중격변론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지질주상도와 오랜 연대를 기반으로 성경을 진화론과 타협한 이론입니다(본인이 자신의 책인 “창조와 격변” (2006)에 여러 번 이를 인정). 다중격변론은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이 지구상에 여러 번 있었으며, 그 격변의 원인은 운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격변이 있을 때마다 지질주상도의 순서로 화석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 중에 하나인 “화석들의 분포가 반드시 매몰의 순서라 보지 않으며 도리어 창조의 순서라고 본다(p. 235)”는 내용을 보더라도 화석을 매몰이 아닌 창조로 해석하며,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물을 진화론적으로 창조했다는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의 책은 과학자들에 의한 검증이 전혀 없이 혼자만의 편집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후에 이재만 선교사는 “지금 시점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필요한 가장 적절한 강의”라는 평을 받았습다. 이번 양 교수의 경험은 오히려 오랜 지구나이를 믿으면 다시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온다는 귀한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지질학과 학생에게 세미나

20일에는 기독교 지질학과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6시간 동안의 아주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총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질학과 학생은 다섯 명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지질학과 학생이 모인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석했던 다섯 명은 오는 2월 중으로 미국으로 초청하여 창조과학 탐사여행과 특별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다섯 명이 씨앗이 되어 기독교 지질학과 학

생들의 네트워킹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CEO포럼 인도

24일에는 일본 아오모리에서 열린 한일 CEO포럼에서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대한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몽골의 MIU(몽골국제대학)에서 예정되었던 세미나가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뜻하지 않게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예정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발표 이후에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으며, 오는 11월 한일 CEO들이 참석하는 탐사여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기독교 CEO들이 탐사여행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탐사여행은 일본인들을 위해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일본선교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CEO 탐사여행에서는 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도구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차 유학생 탐사여행(12월 29-31)

오는 12월 29-31일 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번 탐사여행 코스는 세도나, 규화목 국립공원, 그랜드캐년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와 알바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참가비는 단 \$70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참석자들께서 주위의 캠퍼스 동료들에게 추천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격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독교 자질학과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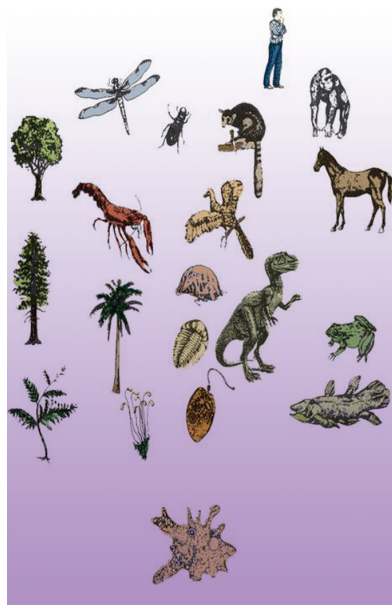
중부지방 창조과학학교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10일

까지 시카고 헬로침교회에서 제 7차 창조과학교가 18명이 등록한 가운데 매 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자와 강사, 도우미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5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여행





“있으라”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명의 기원은 관찰하거나 실험할 수가 없다. 달리 말해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지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만물이 순간적으로 있게 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18세기 영국의 성공회 사제인 ‘자연 신학’으로 유명했던 윌리엄 페일리 시계를 통한 지적설계 이론을 제시했다. 즉, 볼모지에 나가서 시계를 하나 주운 사람이 시계를 분석해 본 후 그것의 용도와 목적성을 깨닫고 시계가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저절로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설계자가 있었다는 이론이었다. 따라서 그는 결론 짓기를, 시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더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는 설계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 이론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철저한 무신론자이며 진화론자인 옥스포드 대학교수 리처드 도킨스는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생명은 무엇이든지 무한한 시간만 주어지면 자연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종류의 생명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페일리의 이론은 잘못이라고 단언하며 시계는 생명이 없고 자체가 스스로 번식하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와 비교할 수 없고 진화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한한 시간과 자연선택이 창조주로 둔갑을 한 것이다. 이것은 헉슬리의 주장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즉, ‘무한한 양의 종이와 무한한 수의 타자기와 무한한 수의 원숭이가 주어진다면 어느 땐가는 시편 23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현대과학은 모든 생명체가 무한한 시간과 자연선택 및 돌연변이에 의해 수많은 종류로 번식이 가능하다는 이들의 주장이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창조주 예수께서 6,000년 전 6일 창조 때에 종류대로 만드신 생명체는, 각 생명체에 입력하셨던 정보들에 의해 구성되어져 있다. 종과 종 사이의 경계는 아주 엄격해서 서로

뛰어 넘을 수가 없다. 즉 한 개체의 유전인자에 새로운 정보가 첨가되지 않고는 다른 종류로 변할 수가 없다.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도구로 주장하는 돌연변이는 정보를 증가시키는 대신 오히려 유전인자에 나쁜 변화를 초래한다. 생명체가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눈에 띄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변화를 거쳐 물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진화론자들이 남용하는 ‘무한한 시간’이란 사실 있을 수 없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세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이 세가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시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무한하시지만 피조물인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시간은 또 막연한 것이 아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년은 365일이다. 일반적인 시간은 천체의 운행으로 정의된다. 시간이 생명체를 복잡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 시간에 의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주적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은 시간이 감에 따라 단순하게 변화될 뿐이다. 사람과 기계는 세월이 감에 따라 점차로 늙고 낡게 된다. 변함없이 보이는 태양도 열량소모로 인하여 나날이 닳고 있다. 90년대에 시작한 지적설계운동의 리더 중의 하나인 마이클 비히교수는 생명체의 환원불가능의 복잡성에 관하여 쥐를 예로 들어 간단히 설명했다. 쥐 잡는 틀은 반침과 망치와 스프링과 고리와 고리를 놓아주는 미끼대로 되어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쥐틀이 아니다. 순서대로 잘 맞추어 놓아야 한다. 이것을 환원불가능의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다섯 가지 부분품들이 저절로 모여 어느날 쥐틀이 되어 낯선 쥐들을 잡게 되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무기물질이 우연히 모여 단세포 아메바가 되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원숭이를 거쳐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괴변(왼쪽 그림)을 과학이라고 믿는 현대인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프래드 호일 경은 보통의 단세포 박테리아안에 있는 400가지의 효소(단백질)가 자연적으로 그냥 만들어 질 확률이 10의 40,000승 분의 1이라고 한다.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10의 80승의 원자가 있다. 진화론자들이 믿듯이 지구의 나이가 150억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10의 18승 초(second)를 말하는데 지구가 만들어진 첫 순간부터 매초마다 박테리아 안에 포함된 내용물을 전부 모아 실험을 했다고 해도 아직 10의 18승의 실험밖에 하지 못했으니 150억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로는 우연히 박테리아 하나가 만들어 질 확률은 ‘0’이라는 결론이다.

세포 안의 각종 물질은 그냥 두면 서로들끼리 화학작용을 해서 곧 못쓰게 된다. 일정한 조건과 빈틈없는 순서로 완벽한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가 불가능하다. 원자들이 모여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수백가지의 아미노산이 질서 정연히 모여 단백질이 되고 수백수천가지의 단백질이 모여 세포가 되고 수백가지의 세포가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설계자이다.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을 만들 수 없고 단백질이 없으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피 없이 심장은 일을 못한다. 심장 없이는 폐가 필요 없다. 폐가 없으면 소화기관이 필요 없다. 소화기관 없이는 중추신경이 필요 없다. 중추신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각종 조직이나 조직내의 세포도 마찬가지이다. 세포내의 수 십억 가지의 정밀한 구조와 단백질, 그 중 각종의 효소를 어느 하나라도 미리 만들어져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 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서대로, 또한 동시에 순간적으로 존재를 시작(fiat creation)하지 않으면 생명의 시작은 불가능하다. 즉 “있으라”하는 순간에 만들어 지는 방법(오른쪽 그림) 외에는 없다.



최인식
창조과학
선교회 회장,
의사

노아홍수의 퇴적작용과 판구조론



역암: 자갈이나 바위가 박힌 퇴적암

미 국 창조과학연구소(ICR)는 수준 높은 창조과학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창조과학재단

(National Creation Science Foundation, NCSF)을 만들고 첫 번째 연구로 지질학자 오스틴(Steve Austin) 박사가 제안한 “노아홍수의 퇴적작용과 판구조론(Flood-Activated Sedimentation and Tectonics, FAST)”에 연구 기금을 수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만약 창세기 1-9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주와 인류 초기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노아홍수는 지구의 모습을 바꾼 전지구적인 격변이었다. 현대 창조과학 운동은 1961년 헨리 모리스 박사와 존 윗컴 박사가 지은 “창세기 홍수(The Genesis Flood)”였는데 이 책은 성경의 표현과 과학적인 증거들을 비교하여 홍수가 현재의 물리적 지구 형성과 지질학적인 역사를 설명하는 최고의 것임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FAST 연구 과제는 그 홍수의 의미, 과정, 결과들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으로서 창세기의 설명을 미시적 연구인 퇴적작용과 거시적 연구인 판구조 과정까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 3 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 된다.

1. 홍수 묘사, 창세기 6-9장의 본문과 지구의 지질학적인 역사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함.
2. 홍수 퇴적과 지층의 순서, 지구의 퇴적암과 암석층의 성질을 조사하고 모래와 진흙의 빠른 저탁류 침전에 대한 이론들을 시험함.
3. 홍수 판구조, 어떻게 홍수의 거대한 물리력이 거대한 지질학적 구조들을 만들었는지에 관한 이론들을 세우기 위한 산의 모양과 형성 연구.

이 연구는 지질학자들이 홍수 사건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실마리를 발견하도록 구약학자들이 가진 고대 히브리어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창세기 홍수 기록의 문법, 어휘, 기타 언어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관련 과학자들은 노아홍수가 넓은 지역에 특징적인 암석층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 남서부의 퇴적물을 조사하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엄청난 움직임으로 대륙판들의 충돌이 만든 대형 단층의 증거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대륙판들이 충돌할 때 격변적인 암석 이동과 지구의 표면 모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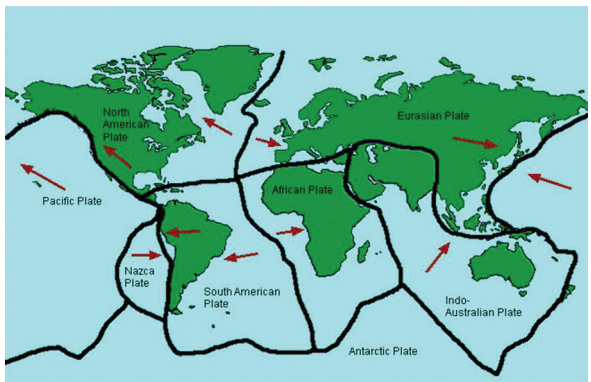
8월에 오스틴 박사는 FAST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알래스카 Wrangell St. Elias National Park의 야외 탐사를 한 바 있는데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저는 태평양 판과 백악기 말기의 북아메리카 판이 충돌한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MacColl 능선 구조가 쌓였습니다. 저는 그 판 충돌 때 생긴 퇴적층과 판구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MacColl 능선 구조는 그 충돌의 결과물입니다. 오스틴 박사는 역암층 #7으로 명명 된 구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결론은:

암석이 파쇄 되어 생긴 크고 작은 조각들이 해저 진흙이 흐르듯이 엄청난 힘으로 차곡차곡 운반된 것임에 틀림 없다. 가장 큰 바위는 1m x 0.3m나 된다. 면도날 같은 파편 조각들은 비늘처럼 겹쳐져 충돌 지역에서 북쪽으로 10마일 이동한 것을 보여 준다. 마모 된 파편들은 흘러가면서 연마될 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역암층 #7은 약 30m 두께인데 시간 당 30 마일 이상의 흐름이었을 것이다. 2,300 m의 고지에 있는 이 지층이 천천히 쌓였다고 주장할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 이 지층들은 격변적인 홍수에 의한 퇴적의 증거다. 내가 예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규모의 “걸쭉한 스프”가 퇴적 된 것이다.

세계의 지판 구조

FAST 연구 과제의 다음활동 계획은, 오스틴 박사가 자기의 주 연구자들을 네바다의 Mesquite에 모아 현재의 연구들에 대해 토의하고 차후 과제들을 계획하는 것이다. NCSF는 이 중요한 과학적 연구가 더욱 진전되기를 바란다.



Larry Vardiman, Ph.D. ICR 연구
책임자. Acts & Facts. 37 (10): 9.

LA (월서) 온누리교회

빙하기 탐사여행을 마치고

깨달아서 알지 못한다는 비과학적인 하나님 존재의 믿음을 과학적으로 풀어서 받아들이려 하는 아 이러니를 느낍니다. 이때까지 다윈의 진화론으로 궁금했던 점이 풀어졌고 성경의 중요성,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점을 배웠으며 지형이 바뀐 것을 다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노아홍수에 대해 어떻게 이런 지형이 생기고 우리의 조상 등 엄청난 것들을 배웠다! - 남두현

먼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대강대강 그리스도인이었던 저에게 현실로 주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저의 생애를 다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이현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고 말씀하셨던 처음 세상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모두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도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군요. 성경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미련한(?)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 송경옥

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의 진화론적인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학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귀한 탐방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태초가 가장 좋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 박은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로의 여행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감사하며 저 자신까지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 위해옥

하나님을 스스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지만, 창조과학 투어는 이치에 맞아야만 이해하도록 교육받는 요즈음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실재하심을 이해하며 저절로 믿어지게 하는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믿습니다. 힘이 닿는 한 열심히 후원하고 싶습니다. - 이승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를,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 최명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약간의 의문점(?)을 이번 여행을 통해 해답을 얻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의 위대 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도 더욱 확

고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창조과학 투어가 많은 사람에게 확신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리라 믿습니다. -김정희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위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 어려운 고난과 이해하기 어려운 창조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바로 성경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Ice age였습니다. 저는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등....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아프고 힘든 친구들한테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엄마, 아줌마, 전도사님, 이젠만 창조과학 선생님을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 파이팅!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하나님의 어린 천사, 정은지 올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귀한 자녀임을 한 번 더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전도가 필요 한지, 왜 선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찾으시는 마음을 안타까운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장혁란

난 이 여행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또 오고 싶다. -장민호 올림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할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우, 김미화

이번 여행을 통해 빙하시대와 노아홍수의 관계를 알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빙하시대를 그전의 사건으로 알아왔다가 그것이 노아홍수 이후의 사건이라는 점이 너무 놀랍고 또 당연하고 창조주, 우리 maker님께 이번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금주

2년 전 그랜드캐니언에서 받았던 은혜를 세상 살아가며 다시 또 뒤로 하고 살아가 이번 여행을 통해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 박미배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지만, 전도의 미려한 방법을 통해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정말 귀한 사역과 귀한 열정에 감사드리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강성근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역대상의 말씀이 더 실감이 나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이었다.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손진성

영적, 육적으로 귀한 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빙하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으며 그때에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인도해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영재 목사

2008년 ACT Schedule

10/5-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9 인랜드교회 중보기도학교 (이재만, 951-809-1000), CA
 10/23 인랜드교회 중보기도학교 (이재만, 951-809-1000), CA
 10/24-26 한마음 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925-828-3219), CA
 10/25-26 템피칼로교회 (세미나, 최우성, 480-291-2717), AZ
 10/29 시카고 헤브론교회 (수요 11AM-12PM 세미나, 이동용, 630-400-6114), IL
 10/31-11/2 뉴욕성결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948-0339), NY

11/5-9 창조과학학교 시애틀 형제교회, WA
 11/10-14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
 11/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생수의 강 선교교회, 562-653-0178)
 11/18 KCCC (세미나, 최우성, 213-210-5224), L.A., CA
 11/21-24 현지교회 및 한인교회 (세미나, 이동용), C국
 11/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323-466-1234)

12/9 뉴저지 하늘문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 381-1390), L.A., CA
 12/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858-733-1129), San Diego, CA
 12/29-31 6자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2009년

1/5-1/16 웰드미선대학교 강의 (이재만, (323) 823-4629), L.A., CA
 4/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760-745-4977)
 4/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카고 웰로십 교회, 213-381-1390)
 5/11-14 창조과학 탐사여행 (MOM 선교회, 408-313-1527)
 5/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6/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미준 감사 수련회, 213-381-1390)
 7/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7/31-8/2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공동체, 213-446-2821)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 (온누리교회, 213-382-5658)
 10/23-25 토론토 성산교회 (세미나, 이재만, 416-785-4620), Canada
 12/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858-733-1129), San Diego, CA

후 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